

최연의 산 이야기 <6> 북한산 5



진흥왕이 올랐다는 비봉. 이곳에 세워진 진흥왕순수비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지고 표지석만 남았다.

북한산에 관한 기록은 각종 역사지리서와 이곳에 올랐던 이들이 남겨놓은 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국보 3호인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려와 조선 때의 학자들이 북한산에 올라 남겨놓은 비문(碑文), 기문(記文), 시문(詩文)들이다.

이들 학자들이 북한산에 올랐던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히기 위해 산에 든 사람과 북한산을 유람하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 그리고 산상의 증·개축을 위해 현장조사차 오른 이들도 있었다.

이러한 남겨진 기록들 중에 역사적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가 있는 비문인 진흥왕순수비와 태고사(太古寺)의 원종국사탑비(圓證國師塔碑)의 내용을 살펴보고, 학자들이 남긴 기문과 시문 중 사찰과 관련된 내용만 가려서 소개하고자 한다.

진흥왕순수비는 마모가 심하여 전체 318자 중 159자 정도가 복원되어 그 내용을 대강이나마 해석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진흥왕이 선왕(先王)인 범흥왕의 교시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신을 공경하기에 알맞은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백제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지방 유지들을 통하여 민심을 살피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왕이 직접 북한산에 올라 그 시야에 들어오는 곳(현강하류와 인천지역)을 모두 경계로 확정(劃定)하고, 한성에서 금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나는 곳마다 잘 살펴 합당한 상을 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사실은 진흥왕이 올랐던 북한산은 남서쪽 끝에 있는 비봉이며 그가 획정 지은 땅도 북한산 주위의 한강유역이라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임진강 남쪽 정도였는데 800여년 뒤 이성계란 야심찬 장수는 북한산의 최고봉인 백운대에 올라 '등 백운봉'이란 시를 남기고 마침내 온 나라를 얻었다.

맹맹히 휘어잡고 상상봉 올라가니
조용한 암자 한 채 구름 속에 누웠구나

눈앞에 보이는 땅이 내 것이 될 양이면
초월강남(楚越江南)먼먼 맨들 어이 아니 안 가리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측근 신하로서 한양의 도성 건축을 주도하고 신권정치(臣權政治)를 주장하다가 왕권강화(王權強化)의 노선을 견지한 이방원에게 참살당한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도 북한산과 인연이 깊다.

고려 말 공민왕이 노국공주가 죽자 시름에 빠져 신돈(辛旽)으로 하여금 사부로 삼아 국정을 자문케 하였으나 이때 신돈이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귀양 보내거나 죽이자 삼봉은 삼각산 아래로 은둔하여 고려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이때 얻은 호가 삼각산의 세 봉우리라는 의미로 삼봉이라 하였다.

고요히 앉았더니 생각 일어
저 삼봉의 마루에 오르케 하네
송악산 서북쪽 바라보니 높고
높게 검은 구름 무심히 떴네

태고 보우 국사가 태고사에서 입적하여 부도와 국사의 행장을 기록한 탑비를 이곳 태고사에 세웠는데 그의 행장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태고사 원종국사탑비로서 고려 말의 대학자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글을 짓고 명필 권주가 썼다.

그 내용 중에 신돈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우려하여 왕에게 올린 글을 소개하면 "나라가 다스려지면 진승(眞僧)이 그 뜻을 얻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사승(邪僧)이 때를 만납니다. 왕께서는 살피시어 그를 멀리 하시면 종사(宗社)에 큰 다행이겠습니까."

문수사에서 주석하였던 고려 말의 고승 탄연(坦然)이 문수사에 대하여 시를 남겼다.

천하를 경영한 자 북한산에 올랐구나

한 칸 방이 어찌 그리 텅 비고 넓기만 한가
일만 인연 모두 적막하네
길은 바위틈을 뚫고 통하여 있고
샘은 돌을 뚫고 떨어지네
하이얀 밝은 달 처마 끝에 걸려 있고
선달바람 숲속 구렁에서 일어나네
누가 저 스님(上人)따라 맑게 앉아
참 즐거움(眞樂) 배우려나

비봉 동쪽에 있는 승가사에 대해서는 문성공(文成公) 정인지(鄭麟趾)가 시를 남겼다.

남떠러지 바위에 산길이 험하여
지팡이 짚고 또 등나무 휘어잡네
처마가엔 가던 구름 머물고 창 앞에는
쏟아지는 폭포수 많기도 하여라
차를 끌이니 단지에서 가늘게 우는 소리 나고
물을 길으니 우물에 차그맣게 물결이 이네
몇 사람의 고승이 있어 참선하기도 하고
또는 노래도 부르네

지금은 절터에 돌기둥만 남은 옛 선림(禪林)이었던 부왕사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둘러 시를 남겼다.

산구경은 어디가 좋은고 하니 부왕이라
옛날의 선림이라네
해 지나 불우리는 물론 것 같고 단풍 받아
골짜기는 어둡지 않네
풍경소리 원근(遠近)에 들려오는 데 온갖
새들 유심(幽深)을 함께 즐기네
머리 머리 절묘함을 치춤 깨치니 영구(靈區)는
곧 도심(道心)과 서로 맞는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닭이 살던 자리

'끄르르르르' 라고 해야 할까? '크아끄르르어어' 이라고 해야 할까?
기분 나쁜, 무슨 일인가 당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긴 했다. '또 뭐가 왔나?' 싶었으나 '뭐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며 살피지 않았다. 문만 열면 보이거나 집 뒤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었다. 울음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듯해서 집에서 산 위쪽으로 집 한 채 들어설만한 거리를 두고 닭장을 지었다. 닭들이 급박하게 울부짖을 때마다 달려가는 것도 10년이 넘다보니 피가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이즈음 몇 번인가 요란한 울음소리에 달려갔다가 허름한 천 것도 새벽의 작은 소란을 무심히 넘기는데 한 몫 했다.

공지에 불이 붙었던 이전에 비하면 작은 소리였다. 사소한 떨림에 휩싸이다보면 정신만 어지러울 뿐이라고 내 스스로를 타박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느낌만은 좋지 않았다. 시퍼런 빛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스쳐가는 모습을 본 것만 같았다. 뒷전에서 풀어놓은 진땀개가 땅을 뚫고 들어가 서니 마리의 닭을 물어 죽인 일이 발생한 지도 2년의 세월이 흘렀고, 살행이가 집안해 닭을 채간 것도 3, 4년 전이었다. 그때마다 닭장을 보수했으나 그 뒤로 이렇다 할 사건이 없는 동안, 닭장을 둘러친 땅이 삭고 나무에 못을 박아 만든 틀이 썩어 들어간 것은 의문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늦은 집에서 깨어 아침을 먹고 모이를 주기 위해 집 뒤로 돌아서 산비탈을 타고 닭장 앞으로 올라갔다. 나를 보고 출입구 앞으로 달려오던 닭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또 뭘 일인가? 닭의 깃털이 평바닥에 널려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한 마리 정도 뵈가에 희생됐구나!' 하고 생각했다. 몰살이리나!

눈앞의 모습을 현실로 인정하기 위해 닭장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닭들이 헛대애 앉아 자는 곳도 비어 있었다. 헛대 한쪽이 바닥으로 떨어져 사선으로 누워 있었고 그 밑에 닭들이 깔렸다. 지붕을 이어붙여, 비오는 날이나 눈이 덮인 겨울에 쓸 수 있게 만든 곳에도 닭달만 수북하게 깔렸다. 깃털 사이에 거무튀튀한 것이 있어 살펴보니 잘린 닭의 발이었다.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 하나의 발이 더 있었다. 월광 가까이에선 모이주머니와 엽통이 붉은 빛으로 햇살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지붕이 없이 나일론 망으로

닭의 죽음이 나의
삶과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니
그것이 씁쓸하다

덮여있을, 닭의 놀이터 걸 산란장이 놓여진 곳에는 닭의 날개 네 개가 깃털과 뒤엉킨 채 너부러져 있었다. 침입자가 퍼질러 앉아 식사를 한 흔적이 분명했다. 모가지가 붙은 채 구석에 처박힌 대가리도 하나 보였다.

어딘가에 머리를 처박고 있는 볼 한 마리 정도는 있었지. 다시 한 번 닭장 안을 살펴보거나 한없이 자유로운 깃털들이 어우러진 모습에 어지러울 뿐이었다. 닭이 있던 자리에서 서서 사라진 닭을 보자 하니 세상이 텅 빈 상태로 다가왔다.

이사는 첫 해, 이웃 아주머니가 기르려며 준 닭 한 쌍의 명맥이 십삼 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해마다 어미의 품에서 눈을 뜬 병아리들이 닭장 뜬 어딘가로 침입한 족제비나 구렁이에 잡아먹히면서도 몇 마리씩은 살아남아, 원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손님상에 올리는 와중에서도 대여섯 마리의 숫자가 유지되고 있었다.

새벽의 소리가 한낮의 닭장 안, 닭들이 깔린 땅 위에 찬란한 햇살로 반짝였다. 월광을 뚫고 침입한 검은 물체의 습격, 살려줘 살려줘 파다다 뛰고 날고 처박히고, 날개야 부러져라 날아도 날아갈 곳 없는 갇힌 세상. 콧물, 물리고, 크으으, 몸속으로 박히는 이빨, 삶의 마지막 속으로 파고드는 새벽의 어스름, 두리위라 아프지도 않은 닭의 몸부림. 그때 닭들이 본 세상은 얼마나 어두웠을 것인가? 얼마나 넓게 텅 빈 세상이었을 것인가?

닭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닭의 죽음이 나의 삶과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니 그것이 씁쓸하다.

저녁 무렵부터 다시 불은이 내린다. 앞산도 옆산도 보이지 않게 공간을 가득 채우며 눈이 내린다. 한때 닭이 살던 자리도 덮이며, 그들이 차지했던 공간도 메우며 눈이 내린다. ■유승도 (시인)

마음이 푸근하고 정겨운 곳!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연등 할인기

011-554-2988
011-879-0889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515-2988, 555-1087, 508-9377~8
팩스: 508-0101 인터넷: 070-7425-0518

※ 36년 전통의 동진/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달력 카달록은 매년 8~9월에 우편발송합니다.

※ 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공단등(6cm) @2,400원(80개이상)	바림등(6cm) @2,600원(80개이상)
공단등(8cm) @3,000원(96개이상)	바림등(8cm) @3,300원(96개이상)
공단등(10.5cm) @5,000원(24개이상)	바림등(10.5cm) @5,500원(24개이상)
공단등(13cm) @12,000원(12개이상)	바림등(13cm) @13,000원(12개이상)
공단등(20cm) @30,000원(4개이상)	바림등(20cm) @35,000원(4개이상)
공단갈라등(6,8,10,5,13,20,30cm)	바림갈라등(6,8,10,5,13,20,30cm)

비닐만월등(특) @170,000원(100개)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1Box)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1Box)
비단점등(12cm) @290,000원(100개)

방수전선간격(50구)
22cm / 23cm / 25cm / 30cm
50cm / 1m ※ 기타주문생산

연일(일반) 5,000원(1루프)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LED전구(국산) 2,500원(50개이상) 1BOX: 50개 / 백열전구색 제조원: 동진전구

밀대양초(70개) 77,000원 ★삼할양초(국산) 크기: 4.6×25cm

파라핀(12명) 50,000원 ★하나양초(국산) 1BOX: 1.80×12명

영원향(단) @10,000원 (10개이상) 길이: 14.2c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리어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헌불삼 / 02)2004-8216
동점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불교인이려면 누구나 giban
나만의 청정세계 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giban
왕선 선경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giban